

댐 주변지역 지원 촉구

심민 임실군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성명서 발표

“댐 주변지역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을 조속히 처리하라.”

심민 임실군수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전국 댐소제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소속 18개 지방자치단체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댐 건설로 낙후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댐 관리청 댐 사용권자나 생활용수댐 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댐 지역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출연금 비율은 지난 2004년 1월 법률 개정으로 정해진 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없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14년동안 안개 발생 등으로 인한 작물의 상해, 방해, 성장장애, 주민건강피해, 댐 수몰지에 대한 지방세 감소 등 지속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며 “출연금의 액수가 주민들이 감수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최근 2년 동안 담수량의 감소로 인한 출연금이 줄어들면서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출연금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은 추주시를 지역

구로 둔 이종배(자유한국당)의원이 지난 4.19일 의원 대표 발의로 발의한 상태다.

임실군수인 심민 회장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4년간 변동이 없었던 댐 지원사업 출연금 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협의회는 본 법안의 개정을 위해 2011년 11월 협의회 창립이후 한국수자원공사, 국토교통부등 유관기관 협의 및 이해 관계자 및 장관 초청간담회,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 면담,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생활안전 개선 공모사업 선정

2억원 들여 동충동 구도심 일원 방법시설 확충 등

남원시가 침체된 구도심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나섰다.

시는 전북도가 주관한 '2018년 생활안전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주민협의회, 남원경찰서와 함께 준비하고 실제 주민 불편 사항을 꼼꼼히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한 결과, 남원시 추진 의지가 높게 반영돼 좋은 결실을 거두게 됐다.

생활안전 개선사업은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의 생활불안 요소를 찾아 안전한 환경설계 기법을 적용하여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인 동충동 공

용버스터미널 시가지는 유동인구와 교통량이 많지만 급격한 슬럼화가 진행되어 있는 구도심이다.

노후된 건물, 빈집과 골목길, 비좁은 도로 등 도시환경이 취약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범죄발생률이 높은 지역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다.

우선 범죄예방을 위한 기본 방법시설을 확충한다.

CCTV, 안심 비상벨, 안내지도를 교차로와 사각지대에 집중설치하고 남원경찰서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에 범죄발생을 제로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는 보조조명, 그림자 조명을 통한 조도 확보와 아름다운 야간 경관도 보여줄 계획이다.

노후된 도로에는 감성적인 그림과 보·차도 구분 안전도색을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안전문구를 새겨 주민과 함께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사업은 7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침체된 동충동 구도심을 안전하고 아름답게 개선하면 인근 동부시장과 연계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찾아와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 '전국 최우수기관'

식약처 발표 2017 평가 결과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한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개최된 2017년도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우수지자체 포상 및 시상식 전국 228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년마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평가한 것으로 남원시보건소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식

품의약품안전처장 기관표창을 수여받았다.

남원시의 식생활안전지수는 ▲어린이 급식시설 식중독 발생률 등을 포함한 '식생활 안전관리 정도(40점)', ▲결식, 비만관 등 '영양섭취 관리정도(40점)', ▲지자체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인지도 등의 '식생활 인지·실천 수준(20점)' 등 3개 분야의 29개 항목(총점 100점)으로 구성된 평가에서 82.3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전국 1위로 평가되어 남원시 어린이 식생활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다.

남원시보건소는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영양교육·캠페인을 실시하여 어린이 식생활 영양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은 14일부터 진행되는 '미니메드 스쿨' 과정에 전국에서 70여명의 교육생이 입교했다.

건강한 노후준비 교육 전국서 인기

순창 '미니메드스쿨' 과정 교육생 몰려

순창형 고령화대비 노후준비 교육이 전국적 인기몰이를 이어가면서 힐링순창을 일컫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14일부터 진행되는 '미니메드 스쿨' 과정에 전국에서 70여명의 교육생이 입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생 대부분은 부산 지역에서 참여해 순창 노후설계교육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미니메드 스쿨은 기초건강교육 및 의학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다. 특히 전남대학교 박상철, 임상철, 허환 교수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조비룡 교수, 정선근 교수, 조원상교수 등 국내 최고의 교수진이 참여해 공신력을 인정 받고 있다. 또 순창만의 힐링 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 순창색이 잘 묻어나는 노후교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첫날에는 서울대 재활의학과 정선근 교수의 '근 골격계 통증 바로알기'와 조원상 교수의 '뇌졸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교육이 이뤄진다.

둘째날에는 전남대병원이비인후과 임상철 교수의 '난청의 원인과 치료' 성부대학교 비뇨기과 손환철 교수의 '갱년기'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셋째날에는 '건강한 눈을 100세까지'란 주제로 전남대학교 허환 교수의 강의와 박상철 교수의 '100세 장수시대의 건강과 행복', 전북대학교 김상현 교수의 '건강 관리를 위한 운동처방'이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북대학교 장기완 교수의 '건강한 치아 관리'와 서울대학교 조비룡 교수의 '행복한 마음! 건강한 신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농약대체 미생물 활용 농법 보급

순창군이 GCM(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농법 실용화기술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 농약을 대신한 친환경 신기술 보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순창군이 GCM(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농법 실용화기술 보급에 속도를 내면서 농약을 대신한 친환경 신기술 보급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은 14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친환경 농업 참여농가 20여명을 대상으로 GCM 배양 및 작물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GCM 농법이란 기존 농업에서 사용하는 농약 대신 젤라틴·키틴 분해 미생물을 이용해 병해충을 방제하고 유용 미생물 수를 늘려 작물 생육을 촉진시키는 친환경 농법이다.

보통 선충의 알집과 알껍질, 병원성 곰팡이 세포벽은 젤라틴과 키틴

으로 구성돼 있는데 GCM 미생물이 이를 분해해서 선충과 곰팡이를 박멸하고 유해 미생물 증가로 작물생육 촉진과 토양의 개량 효과도 나타난다.

군은 2016년부터 GCM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선정해 꾸준히 기술지도에 나서 성과를 보고 있다. 대상농가는 블루베리, 딸기, 쌈채소, 콩 등 다양한 작물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다.

군은 앞으로 각 농가를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진행해 친환경농법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춘향제 행사 전국사진촬영대회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제88회 춘향제 행사 전국사진촬영대회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광한루원, 사랑의 광장, 남원관광지 등 행사장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진촬영대회는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가 주최하고 춘향제위원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전국의 사진 전문가, 동호회 등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촬영대상은 춘향제 행사 종목인 춘향선발대회, 사랑등불행렬, 춘향시대, 춘향길놀이 등 모든 춘향제 행사장을 소재로 한다.

남원시 및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는 이번 사진촬영대회에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진작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홍보물 4,000매를 제작·배부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촬영한 작품은 6월 18일까지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에서 접수 받으며, 6월 26일에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한국사진작가협회 남원지부 홈페이지 등에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금상 1점(상금 100만원), 은상 2점(각 30만원), 동상 3점(각 10만원), 가작 5점, 장려상 5점이며, 시상과 함께 작품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춘향제 행사 전국사진촬영대회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축제 중 가장 오랜 연륜을 지닌 춘향제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기 위한 대회로 사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학교 건강검진 실시

풍산초등학교 등 3곳 131명

순창군이 학생건강검진 사업을 진행해 아이들이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군 보건의로원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풍산초등학교 등 3개 학교 13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 및 신체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를 치료해 학생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검사 기본공통 항목은 근골격 및 척추검사, 눈, 귀, 혈압, 소변검사(단백뇨, 요잠혈), 치과 검사 등을 진행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